

## 치매환자 담당의사와 의사소통

치매 환자 주치의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.

치매환자와의 병원 동행은 가족이나 치매환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.

가족은 치매환자의 외출 준비를 돕고, 병원에 동행해야 합니다.

또한 사전에 치매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, 의사와의 첫 대면에서 치매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합니다.

### 치매환자의 외출 준비를 도울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

치매환자는 자신이 어디를 가는지, 왜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.

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외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

외출준비 과정은 최대한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사전에 병원에 방문 할 계획을 설명하면 더 잘 따르는 치매환자가 있는 반면,

병원에 간다는 사실을 도착 직전까지 모르는 편이 더 나은 치매환자도 있습니다.

미리 예고 할 경우에는, 아침에 환자를 깨울 때 “오늘 병원에 가야 해요”라고 말해주세요.

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 거의 도착할 즈음 “오늘 의사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어요”라고 합니다.

외출 전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

어디를 가는지, 어디에 주차를 할 것인지.

시간은 얼마나 걸릴 예정인지 등을 미리 파악해두면 좋습니다.

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여유 있게 출발하되, 너무 일찍 도착해서 오래 기다리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.

###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

의사를 만나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그림책과 같이 병원 로비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또는 놀이도구를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.

의사와 상담 후 불편함을 보이는 치매환자의 경우,

놀이도구를 준비하여 귀가하는 동안 힘든 일정을 잊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
### 의사와 치매환자 이야기 하기

가능한 치매환자가 의사와 직접 대화하도록 해주세요.

의사는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해 최선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.

고령의 치매환자는 자신이 불평을 하는 것 같아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와 불만사항을 전부 털어놓지 못합니다.

하지만 의사는 치매환자에 관한 모든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 말해주어야 합니다.

### 의사와 가족 이야기 하기

질문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쑥스러워 하지 말고 다시 물어보기 바랍니다.

의사에게는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킬 책임이 있습니다.

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 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습니다.

의사를 만나기 전에 치매환자와 관련한 어떤 문제나 증상, 질문 등  
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메모하여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 
의사가 하는 말을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.  
의사는 치매환자의 건강, 약물, 치료방법 등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설명하므로  
필요한 부분은 메모하며 정확하게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.  
가능하다면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.  
단, 녹음에 대해 의료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.

지금까지 돌봄 기술 중 치매환자 주치의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 
요약정리를 살펴본 뒤,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~~  
보다 자세한 상담은 자치구 치매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  
감사합니다.